“혁신학교 때문에 원거리 학교 배정”

광주 수완지구 장덕中 신입생 학부모들 졸속배정 강력 반발

20여명 시교육청 교육감실서 밤샘농성

광주시교육청의 불합리한 중학교 배정에 대해 학부모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말썽이 일고 있다.

11일 광주시교육청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광산구 수완지구 장덕중 신입생으로 배정된 자녀를 둔 학부모 20여명이 최근 장휘국 시 교육감실을 항의 방문한 뒤 일부는 밤샘 농성을 벌였다.

학부모들은 같은 학군내 특정 중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돼 학급이 크게 줄어드는 바람에 자녀 51명이 원거리 중학교에 배정됐다는 주장이다. 또 자녀들의 출신초교와 가까운 중학교에 향후 전입생 40여명을 받기 위해 1개 학급을 두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자녀를 원거리로 보내는 등 홀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학부모들은 “고실초 졸업생 가운데 20%가 넘는 51명이 가까운 성덕중을 놔둔 채 멀리 떨어진 장덕중으로 배정됐다”며 “지난해까지도 고실초 졸업생 전원이 가까운 성덕중으로 배정됐으나 올해는 수완초 학생 대부분이 성덕중으로 배정되면서 선의의 피해를 봤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수완지구 학군에는 수완·장덕·고실·큰별 등 4개 초등학교가 있으며, 이들을 배정받는 중학교는 성덕·수완·장덕중 등 3곳이다.

그러나 올해 수완중이 혁신학교로 지정되면서 학급수가 지난해 12학급에서 8학급으로, 학급당 학생수도 30명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성덕중으로 학생들이 몰려 이같은 현상이 빚어졌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수완초 졸업생 226명 중 79%인 178명이 성덕중으로 배정됐으며 정작 수완중에는 48명만이 배정됐다.

수완중을 제외한 성덕, 장덕중 주변 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37명씩 배정됐으며 신입생수도 성덕중은 367명, 장덕중 344명인 반면 수완중은 240명에 불과하다.

학부모들은 또 고실초교와 가까운 성덕중에 3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비학급을 두고서도 굳이 자신들의 자녀를 장덕중에 배정한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오는 5월께 대단위 입주가 시작되는 아파트 단지 학부모들의 수요를 감안해 전입생들을 위한 예비학급을 뒀다.

더욱이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과정에서 시 교육청과 서부교육청은 업무 기능 등을 놓고 수일째 서로 ‘핑퐁식’으로 넘겨 학부모들의 불만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요구에 따라 재배정을 하게 되면 더 큰 혼란이 오게 돼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지킴이 배치, 시내버스 배차 간격 조정 등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10억’ 주인은 사설 복권업자

돈상자 발견 이틀전 인도네시아 출국

현금 10억원을 우체국 택배 상자에 넣어 서울 여의도의 한 물품보관업체에 맡긴 의뢰인의 정체가 사설복권 발행업자로 밝혀졌다.

경찰은 11일 물품보관업체의 디지털 잠금장치에 저장된 보관 의뢰인의 디지털 지문정보를 본래 문양으로 재현한 다음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지문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돈을 맡긴 사람의 신원을 김모(31)씨로 특정했다. 또 CCTV에 찍힌 의뢰인의 얼굴과 김씨의 지문을 대조한 결과 동일 인물임을 확인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 찍힌 의뢰인은 긴 팔 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었고 짧은 머리에 모자와 안경은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다.

조사결과 김씨는 직원 수 명을 고용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스포츠 복권을 발행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사설복권을 발행해 물품업체에 맡긴 10억원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이번에 발견된 돈은 김씨가 숨겨둔 범죄 수익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돈 상자가 발견되기 이틀 전인 7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해 지금까지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9일 오전 9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백화점의 물품보관업체에 폭발물로 보이는 상자 2개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상자에는 각각 현금 2억원과 8억원이 들어있었다./연합뉴스

나원참 〈8242〉 김종두

학교 생활기록부 함부로 못 고친다

초·중·고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을 임의로 고치거나 대입 전형에 유리하게끔 문구를 수정하는 등 부당 정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비위 행위로 간주돼 처벌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서울 일부 자율형사립고 등에서 발생한 학생부 무단 정정 사건과 관련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

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 기소

미인가 대학 설치 222명에 학위 부정 수여…교수 등 5명도

수도권에 미인가 대학을 설치해 놓고 학위를 부정 수여한 전 대학총장과 교수, 브로커 등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1일 경기 하남시 등에 미인가 대학을 운영한 혐의(고등교육법 위반)로 목포 모 사립대학 전 총장이자 현 전남도의회 의장인 이호균(48)씨 등 교수 5명과 브로커 A(66)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 하남시 사회복지관 등에 학습시설을 설치하고 지난 2005년 34명을 시작으로 불법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2006년 54명, 2007년 73명, 2008년 95명, 2009년 77명 등 사회복지과 신입생 333명을 모집해 강의를 진행하고 학위를 수여하는 등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최소 수강시간인 900시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학생 222명에게 학위를 부정 수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입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이 대학은 “학생을 모집해 주겠다”고 접근한 브로커 A씨를 겸임교수로 임명한 후 수도권 학생을 모집해 강의하게 하고 1160여만원의 강의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회복지학과 학위 소지자는 별도의 시험 없이 사회복지사 2급과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평일 수강이 불가능한 직장인 등을 상대로 주말을 이용, 불법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학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사립대학이 존립을 위해 각종 편법·탈법적 방법까지 동원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미인가 학습장 설치와 출석부 조작 등 교육사범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뇌염 예방접종 하세요 11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북구보건소에서 취학 전 어린이들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인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북구보건소는 0세부터 6세까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연중 무료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대마초 흡연 구속 전창걸씨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11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개그맨 전창걸(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만원을 선고했다. 또 마약의 중독성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전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자택 등에서 20차례 가까이 대마초를 흡연하고, 자신이 가진 대마 일부를 인기 탤런트 김성민 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법원은 앞서 필리핀 세부에서 히로뽕을 구입해 밀반입한 뒤 자택 등에서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김성민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광명역 인근 KTX 탈선

11일 오후 1시20분께 경기도 광명역 인근 터널에서 부산에서 광명으로 향하던 KTX 상행선 열차가 선로를 이탈하며 멈춰섰다.

사고 열차는 광명역에서 270m 가량 떨어진 곳이며 역 내로 서행하며 진행하던 중 철로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코레일은 부산~대전 구간에서는 고속철도 전용선로를 이용해 KTX를 운행하고, 대전~서울 구간은 경부 일반선으로 우회 운행됐으며 모든 KTX가 1시간 이상 운행이 지연됐다. /이종행기자 golee@

학습보조 인턴교사 924명 채용

광주·전남 새 학기부터 초중고 배치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이 각각 올해 학습보조 인턴교사 351명, 573명을 각각 선발해 3월 새학기부터 초·중·고교에 배치한다.

광주시교육청의 분야별 인턴교사 채용인원은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 45명, 산학협력 33명,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지원 6명, 전문상담 72명, 수준별 이동수업 77명, 과학실험 63명, 사교육 없는 학교 33명, 학교보건 15명, 예술교육 7명 등이다.

전남도교육청도 기초학력 미달학생지도 196명, 전문계고 산학협력 44명, 특수교육지원센터 40명, 전문상담 136명, 수준별 이동수업 56명, 과학실험 49명, 사교육 없는 학교 39명, 학교보건 8명 등이다.

채용공고는 시·도교육청과 채용예정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원서접수는 14일부터 18일까지 받는다.

인턴교사는 정규 교사를 도와 학생 학력향상과 인성교육 등에 참여한다. 채용기간은 방학을 제외하고 총 9개월(3~7월, 9~12월)이며 보수는 4대 보험 개인 부담금을 포함해 월 120만원 수준을 지급한다.

지원자격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특수교육, 전문상담 등 일부 분야는 예외적으로 관련 자격증 소지자도 지원할 수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 설 성수품 단속 불공정 거래 14건 적발

전남도는 설 연휴 성수 식품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단속을 벌여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공정 거래행위 14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대형할인마트, 수산물판매장, 횟집,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까지 보름간 도·시군 등 유관기관과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6건, 원산지 미표시 8건 등 모두 14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는 사법처리를 의뢰했으며 원산지 미표시 업소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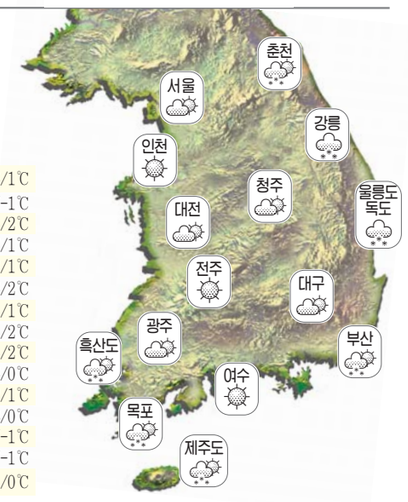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뜸 07시 23분 / 해짐 18시 11분 — 달뜸 11시 55분 / 달짐 01시 50분

손발이 꽁꽁

새벽이나 아침에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광 주	흐린뒤맑음	-6/1℃
목 포	눈온뒤갬	-5/-1℃
여 수	맑음	-4/2℃
나 주	흐린뒤맑음	-7/1℃
완 도	흐린뒤맑음	-3/1℃
구 례	흐린뒤맑음	-6/2℃
해 남	가끔눈온뒤갬	-4/1℃
장 흥	흐린뒤맑음	-4/2℃
순 천	구름조금	-4/2℃
영 광	흐린뒤맑음	-6/0℃
진 도	가끔눈온뒤갬	-2/1℃
전 주	구름조금	-8/0℃
군 산	구름점차적어짐	-8/-1℃
남 원	구름조금	-10/-1℃
흑산도	눈온뒤갬	-1/0℃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먼바다	북서~북	3.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먼바다	북서~북	2.0~4.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먼바다	북서~북	3.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먼바다	북서~북	2.0~4.0m

체감지수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주의	보통	낮음

	밀물	썰물
목포	08:07 19:58	00:29 13:28
여수	03:00 14:42	08:26 21:4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3(일)	14(월)	15(화)	16(수)	17(목)	18(금)
날 씨						
최저/최고	-7/2	-5/1	-6/4	-1/8	1/7	-1/8

주말·휴일 막바지 추위 서해안 등 일부 내륙 눈

주말과 휴일인 12일과 13일, 광주와 전남·북 지역은 찬 바람이 강하게 불어 막바지 추위가 이어지겠다.

광주지방기상청과 전주기상대는 “12일 새벽이나 아침에 서해안과 일부 내륙지방에는 눈(강수확률 60~70%)이 내리다가 오전에 점차 그칠 전망”이라고 11일 예보했다.

12일 예상 적설량은 전남·북 서해안 1~5㎝, 광주·전남·북 1㎝ 내외이며,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5㎜ 미만.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영상 3도 분포를 보이겠다. 이는 평년기온보다 3~5도 가량 낮은 수치다. 이번 추위는 14일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학교설립 57주년(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생활 게시판

화촉

▲오세광·정제희씨 차남 민석군 박원영(전 광주YMCA신협 이사장)·이의용씨 장녀 소현(경기도 구리교문초등학교 교사)양=12일(토) 오후 4시 서울상록회관 4층(그랜드볼룸)

▲박양숙씨 장남 기태현군 박종교(보고종합상사 대표)·이애영씨 차녀 진주양=12일(토) 오전 11시 40분 웨딩의 전당 금호 30층(아도니스홀)

▲정명호(전남대 의대 교수)·정진숙씨 차남 찬욱(전남지방경찰청 기동대 소대장)군 최두주(전남도 대변인실 홍보기획담당)·변재미(백합어린이집 원장)씨 장녀 유리(전남대병원 의사)양=13일(일) 낮 12시 광주신양파크호텔 웨딩홀. 062-228-8000.

부음

▲오화례씨 별세 김동철·동용·동수(완도금당중 교사)씨 모친상 남경진·이춘성(전 광주매일신문 편집국장)씨 빙모상=발인 13(일) 해남 우리병원. 011-649-7035.

▲노정애씨 별세 박길서·호서·득서(광주시청서기관)·익서·선미씨 모친상 추서호·김찬주(강진군 청과장)씨 빙모상=발인 12일(토)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010-3614-5678.

▲이인효씨 별세 차영화(KIA타이거즈 코치)씨 모친상=발인 12일(토) 쌍촌동 한국병원 장례식장. 062-380-3444~5.

▲박승래씨 별세 병선(국제요리학원장)·병식(국제외식산업(주) 대표)·병삼(국제외식산업(주) 이사)씨 부친상=발인 13일(일) 첨단 보훈병원장례식장 3분향소. 010-5613-0255.

謹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弔

▲고우석 씨 모친상 송춘진·이동섭·조명호·정병기·최원선·우재학 씨 빙모상 발인:2월14일(월) 10시00분 장지:승주군 주암면 선영 연락처:250-4412
▲한규열·주희·광희 씨 부친상 이재우 씨 빙부상 발인:2월13일(일) 09시00분 장지:영락공원 연락처:250-4407
▲김문식·문찰·문수·문선 씨 부친상 이동흔 씨 빙부상 발인:2월13일(일) 08시00분 장지:곡성군 옥과면 선영 연락처:250-4410
▲김현중·남중·광중·만중 씨 모친상 이정수·김관호·이상진 씨 빙모상 발인:2월12일(토) 00시00분 장지:곡성 석곡면 선영(영락) 연락처:250-4405
▲조동준·동찬 씨 모친상 이병희·임동진·박석균·박영길 씨 빙모상 발인:2월12일(토) 09시30분 장지:담양 창평면 유천리 선영 연락처:250-4411

그린장례식장 24시 대기 / (062)250-4455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 차봉식 님(남/75세)
子/子婦 : 차재혁 / 황문의, 종원 /
女/壻 : 차민희 / ,현정 / 오왕석
未亡人 : 오정애
• 호실201호 • 발인:2월 12일 • 장지:영락공원

故 이심순 님(여/78세)
子/子婦 : 박승래/이옥동, 승준/김준희
女/壻 : 박승자/ , 주희/지인수
재란/정광일, 숙희/최영근
• 호실301호 • 발인:2월 13일 • 장지:영락공원

故 임효훈 님(남/79세)
子/子婦 : 임순덕/최만례
女/壻 : 임희순/이창규
• 호실102호 • 발인:2월 12일 • 장지:영락공원

故 최규탁 님(남/84세)
子/子婦 : 최창진/이현미, 상진/정영임
女/壻 : 최진희/송태구, 진숙/한병국
• 호실401호 • 발인:2월 12일 • 장지:영락공원

마음까지 편안한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카드 절도범 이름 알려줬다 덜미

쌍나팔

○…훔친 신용카드로 술값을 계산한 30대 남성이 주점 여종업원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줬다가 경찰에 덜미.

○…11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김모(33)씨는 지난 2일 새벽 2시50분께 광주시 동구 광산동 구시청사거리에서 정모(22)씨가 술에 취해 다른 남자와 몸싸움을 벌여 혼잡한 틈을 이용, 태블릿 PC와 현금,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83만원 상당의 정씨 가방을 가져갔다는 것.

○…경찰은 같은 날 시내 주점에서 정씨의 카드로 50만원이 결제됐다는 사실을 확인, 주점 여종업원에게서 카드사용자 이름을 알아낸 뒤 주민등록상 동명의 43명 사진을 발췌해 김씨를 검거했는데, 김씨는 “술에 취해 기분이 좋아져 아가씨에게 이름을 말했었다”고 진술. /양수현기자 yang@